주 일 낮 예 배

인도 : 이충원 목사 1부-오전 9:00 / 2부-오전 11:00

※예배선언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	
※송 영	성가대	
※찬 송	찬송가 14장 / 주 우리 하나님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50. 시편 116편	
기 도	1부 : 김미란 권사	2부 : 김수근 장로
헌 금	찬송가 369장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성경봉독	마 11:28~30(신 18P)	
교회소식	사회자	
찬 양		전영희 지휘자
설 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충원 목사
폐 회 송	찬송가 337장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축 도	이충원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찬양예배 • 오후 2:00

• 기 도	
• 성 경	
• 말 씀	
• 축 도	

▣ 수요예배	• 오전 11:00	▣ 금요기도회	오후 9:30
• 성 경	고전 10:14~22	▣ 셀리더교육	오후 8:50
• 설 교	우상 숭배	▣ 중보기도	자정 12:00 ~ 새벽2:00

▣ 셀 모임 현황

셀	리더	모인곳	참석	헌금	성경	성미	전도	합계	누적
여1	김문자								
2	이몽옥								20
3	김정자B				30	5		35	1370
4	박성희				10	5		15	750
5	안미화								
6	김정례					5		5	580
7	김미란				10	15		25	1235
8	이영란				10			10	49
9	성주애								
10	박은주				10	5		15	620
	이영란								
남1	권일석				10			10	580
2	장순산				20			20	990

☛ (점수) 셀 예배 참석, 성미는 1명당 각각 5점이며,
성경읽기는 1명당 10점, 전도는 1명당 300점입니다.

▣ 12월 ~ 1월 예배 섬김이

• 12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최성탁,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이종언, 윤동화
• 1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심수만,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김영선, 윤영희

▣ 우리가 돕는 선교지

• 정원의(필리핀) • 이태주(카메룬) • 이화섭(인도네시아) • 태국인교회(이용웅)
• 한꿈교회(탈북민) • 총신대학교 • 세계로 교회 • 생명샘교회(군부대)

▣ 향기로운 예물 (농협 170040-51-012041 성은교회)

• 십일조

이충원 윤지은 이형석 성주애 이준구 김경희 이예찬 전영희 정동배 최병열 서옥남 오희원

• 감사헌금

이형석 장순산 김미란 안익모 김수근 박세현 전영희 김용현 무 명

• 오병이어헌금

김주은 무 명

• 건축헌금

손자섭 김정인 장순산 김미란 이윤지 이성호 성주애 조태행 박성희 최병열 서옥남

• 선교헌금

최병열 서옥남 조태행 박성희 손자섭 김정인 장순산 김미란 성주애

▣ 2021년 말씀 기도 일독 셀:_____ 이름:_____

요일 / 성경구절	말씀 기도제목
12일(주일) 잠언 4~7장	
13일(월) 잠언 8~11장	
14일(화) 잠언 12~15장	
15일(수) 잠언 16~19장	
16일(목) 잠언 20~23장	
17일(금) 잠언 24~27장	
18일(토) 잠언 28~31장	

셀 모임 공과 본문말씀 : 미가 5장 2~4절

(47과) 진정한 왕

❶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 5:1)

❷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미 5:3)

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신 구세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미 5:4)

❹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미 5:4)

목회칼럼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

무명의 작가가 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의 글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산을 오를 때 등에 짊어진 적당한 배낭의 무게가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도 등에 짐이 있으면 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삶의 짐도 그러합니다. 너무 과도한 짐은 벅차지만, 적당한 짐은 삶의 중심을 잡아 주고, 고개 하나하나를 균형 있게 넘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짐이 무거워 벗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짐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즐거운 짐'입니다.

한자 '어질 인(仁)'자는 사람이 등에 두 개의 짐을 진 형상이라고 합니다. 어진 사람이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짐까지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제, 이웃의 짐까지 같이 지고 가는 어진 사람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신비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난과 짐이 무거울수록 삶은 더욱 생생하고 진실해집니다. 반면에, 짐이 가벼울수록 인간은 먼지보다 가벼워져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아무 깊이도 의미도 없어집니다.

묵직함을 택하자니 힘들고, 가벼움을 택하자니 얄팍해집니다. 그러나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때에 따라 무거움을 주시기도 가벼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같이 져 주시며 쉼을 주시고, 짐을 이기게 하십니다.

◈ 12월 합심기도

하나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합 2:14)
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시 91)
셋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계 17:14)
넷	교회의 직분자들이 상황의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붙는 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2021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로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❷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전 4주를 주님오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합시다.

❸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공간별 수용인원의 50%(본당은 150명까지 가능)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7셀 ▶ 다음 주 - 8셀

◆ 12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12/25	성탄절예배, 예•결산 모임
12/26	주일학교 수료예배 , 공동의회
12/31	송구영신예배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12일 50호

2021년 성은교회 표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합 2:14)